



5·31 지방선거

막으론 경선 레이스... 예비후보에 듣는다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

“CEO형 행정전문가 전남경제 일으킬 것”

서범석 후보

참여정부 초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낸 서범석 예비후보는 ‘CEO형 행정전문가’임을 강조한다. 정치에는 갖 입문한 신인이지만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이미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례적으로 지방을 거치지 않고 과장에서 바로 국장으로 승진한데다 교육부 차관 선정과정에서도 2~3개월간의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서 후보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은 개혁 마인드와 행정경험을 전남도 행정에 접목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주력한 전남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CEO형 도관이 되겠다”고 도지사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힘있는 여당 도지사’만이 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서 후보는 “전남도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J-프로젝트가 2년여동안 이렇다할 진척 없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그 이유를 다름 아닌 예산확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도가 투자회사에 투자금액 5천억원을 보장해주려는 것도 현 도지사가 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 CEO로서 자질이 부족한 탓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 후보는 나아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가 J-프로젝트의 사업 주체가 되도록 해 국내외 투자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서 후보의 공약은 ▲경제와 복지가 강한 전남 실현(Strong) ▲인재 양성으로 교육입

도 전남 실현(Build up) ▲지속가능한 개발로 청정 환경 보존과 관광 전남 실현(Sight-seeing)으로 요약된다. 이른바 ‘S.B.S 플랜’이다. 그는 “경제지표와 인구유출 등을 볼 때 전남의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인구유출 등 현안이 레드오션이라면 청정 해안선과 갯벌, 1천965개의 섬 등은 블루오션이다. 이 둘의 장점을 취합한 ‘퍼플오션(Purple Ocean)’ 전략으로 전남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외소득 발굴, 교육·의료 등 복지기반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제2 남도학숙 건립과 평생학습 기관인 전남사이버 아카데미 설립, 권역별 원어민 타운 설치, 관·산·학 클러스터 체제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전남의 화합을 위해 경제균등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유치,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관광전남을 대표할 랜드마크 건설 등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공직생활이 교육행정에 치우쳐 종합행정인 지방행정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전남도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이므로 정부로부터 재원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입당해 불과 2주일만에 경선을 치르게 된 서 후보는 “수년동안 준비해온 상대 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도지사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굳이 저를 영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당원들의 양식과 판단을 굳게 믿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첫 주자는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예비후보인 서범석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송하성 경기대 교수간 대결이다. 이들은 12~13일 기간당원(30%)과 일반당원(20%), 주민(50%) 대상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른다. 이번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경선은 광주·전남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광역단체장 경선이다. 광주일보도 두 여당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으로 경선구도와 일정이 확정된 각 정당의 시·도지사 경선주자 인터뷰를 차례로 실는다.



서범석 후보

- ▲광양 출신, 55세
- ▲광주고, 서울대 사범대
-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 ▲서울시 부교육감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경원대 법정대 석좌교수



송하성 후보

- ▲고흥 출신, 52세
- ▲광주상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 ▲프랑스 소르본대 경제학박사
-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 ▲주미대사관 경제외교관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경기대 교수

“국제적 식견·인맥 갖춘 ‘경제통’ 도지사 필요”

송하성 후보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송하성 예비후보는 ‘경제통’임을 자부한다. 주미대사관 경제외교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을 지낸 그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경제도지사론’을 역설했다. “지금 전남은 경제를 일으켜 사람이 모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전남 전체의 경제규모는 용인시 하나보다 못하다. 지난 2004년 용인시의 지방세 수입이 1조4000억원이었던 반면 전남은 9천7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의 정권창출과정에서 ‘정치적 한(恨)’은 풀렸지만 ‘경제적 한’은 풀리지 않은 채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송 후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중앙 경제, 국제적 인맥과 안목을 두루 갖춘 사람이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박준영 현 지사를 겨냥 “언론 도지사 대 경제도지사, 국내와 대 국제과의 대결로 선거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이라면 단순히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무대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주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후보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의 다른 모두 출마자들과 함께 대동단결해 압승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출마자들이 가진 정보와 조직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합동참모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화 교육·문화·관광의 중심 전남 ▲안심하고 일하는 여성, 풍족한 노후 ▲서남권 개발과 동북아 물류중심 광양 ▲쌀과 갯벌의 가치를 확실히 높이는 친환경 산업 등을 골자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순천 도청 제2청사 건립

과 허버드 등 외국 유명대학의 전남분교 유치, 자립형 노인복지공장 설치,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해외 농산물 직판장 개설 등은 하위 세부 정책도 내놓았다. 인구유출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 후보는 경제활성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 돌아오고 싶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서남해안권 개발계획을 관광객 흡인 사업 위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물류전문가의 대거 유입을 통해 광양항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동서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 및 노인복지 개선은 그 다음이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보육 문제인만큼 직장 여성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꾀하겠다는 각오다.

송 후보는 지사에 당선되면 ‘전상시대’를 여는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남, 그 중에서도 목포는 중국의 상하이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전남과 상하이간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과 물류산업, 그와 관련된 조립 가공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미 4년 전 무소속으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할 당시 해양으로 적극 진출했던 장보고대사를 본받아 ‘신장보고시대’를 열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전남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 비해 다소 열세지만 본격적인 선거전 속에서 객관화, 투명화, 이성화를 통해 전세가 역전되고 전국 선거와 맞물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p>상주광역시 의사회 최희진 대표</p>	<p>전라남도 의사회 최희진 대표</p>	<p>경상도 상행외과 최희진 대표</p>	<p>경상도 상행외과 최희진 대표</p>	<p>양동화내과외원 최희진 대표</p>
<p>백현안과병원 최희진 대표</p>	<p>오성군상행외과 최희진 대표</p>	<p>김동주피부미용내과 최희진 대표</p>	<p>오양산병원 최희진 대표</p>	<p>김평남내과 최희진 대표</p>